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

— 근대전환기에서 사회주의시대까지

박충환**

【목 차】

1. 머리말
2. 전근대 중국의 도농연속체
3. 진보적 도시 vs. 봉건적 농촌
 - 1) '대불황'과 모더니티에 대한 열망
 - 2) 사회진화론과 도농이분법
4. 농촌의 정치적 이상화와 도시편향
 - 1) 중앙화와 도농분리
 - 2) 농촌편향과 도시편향
 - 3) 후코우와 농촌의 오명화
5. 결론에 대신하여

【초록】

본고는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궤적을 근대전환기, 중화민국시대,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시대로 구분해서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근대전환기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를 특징지었던 사회문화적 연속체가 해체되고 근대적 도농이분법과 도농불평등의 정치경제적·문화적 단초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중화민국시대에는 중국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서구로부터 사회진화론의 개념적 프레임이 도입되면서 도농관계가 문화적으로 급격하게 재구성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는 진보의 상징이자 모더니티의 소재지로, 농촌은 봉건적 낙후성과 무지몽매의 장으로 정의되고 재현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시대 중국의 도농관계는 표면적으로 양

* 본 논문은 경북대학교 신입교수정착연구비(201514420000)의 재정지원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 일부를 단독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박사 학위논문 제3장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음을 밝힌다. 본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parkhanam@knu.ac.kr)

립 불가능할 것 같은 이념적 양가성을 통해 구성되었고, 이는 문화혁명기에 절정에 이른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조명한 중국 도농관계 변화의 역사적 궤적은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과 그것이 중국의 정치경제적·문화적 지형에서 갖는 중층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적 발판을 제공해줄 것이다.

【키워드】 도농관계, 도농연속체, 진보적 도시, 봉건적 농촌, 정치적 이상화, 도시편향

1. 머리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초 이른바 ‘중앙1호문건’(中央一號文件)의 발표를 통해 당해 연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정치적 현안과 정책 기조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다. 2017년 말 집권 2기에 진입한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이듬해 1월 2일 ‘2018년 중앙1호문건’을 예외 없이 발표했다. ‘농촌진흥’(乡村振兴)을 표제로 한 이 문건은 지난 15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삼농문제’(三農問題),¹⁾ 즉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²⁾ 한편 2018년 1호문건이 발표된지 약 보름 후 개최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이하 ‘19기2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일각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과 절대 권력화를 예고하는 19기2중전회는 향후 중국의 권력지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한 회의가 개최될 시점에 공표된 1호문건의 핵심주제가 삼농문제였다는 사실은 농촌과 농민 문제가 오늘날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드러낸다.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농촌과 농민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의 농촌은 수 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농 인구집단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 5.4운동, 사회주의 혁명, 문화대혁명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중심에 거의 항상 농촌과 농민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도 농촌과 농민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重中之重)로 인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농촌과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시행해온 정책이 바로 ‘도농일체화’(城鄉一體化)를 통한 “농촌의 도시

1) 최근에는 3억명에 가까운 ‘농민공’,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서 ‘사농문제’(四農問題)라 부르기도 한다.

2) http://www.xinhuanet.com/2018-02/04/c_1122366449.htm.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实施乡村振兴战略的意见」, 新华网, 2018.02.04.

3) 秦暉·蘇文, 『田園詩與狂想曲—關中模式與前近代社會的再認識』,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1996; Chen, W. exing,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Development in China 1978-1999*,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1999; Sit, Tsui and Tak Hing Wong, “Rural China: From Modernization to Reconstruction,” *Asian Studies* 49(1): 43-68, 2013.

화’와 ‘농민의 도시민화’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도농일체화가 단순히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을 동격으로 두고 이 두 부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최근 중국의 도농일체화 정책 이면에 깔려 있는 도시와 농촌을 범주화하고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관계 맺는 방식이 주어져 있는 상수가 아니라 역사적·문화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도농구분과 도농관계는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 지형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⁵⁾ 중국의 도시와 농촌이 관계 맺는 방식 또한 중국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는 본문에서 논의하는 바처럼 근현대 중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이분법적 도농구분과 전근대 중국사회에 존재했던 도농연속체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⁶⁾ 도시와 농촌이 관계 맺는 방식에 내재하는 이러한 역사성은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과 그 정치경제적 함의를 포착하기 위해 반드시 그 역사적 변화궤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는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중국 근현대사에서 장기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해온 도농불평등 구조의 문화적 심급과 그 중층적 함의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 근현대사를 개괄적으로 세 시기, 즉 서구와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된 1840년 아편전쟁 전후의 청말 근대전환기,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 전개된 중화민국시대, 그리고 194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사회주의시대로 구분해서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궤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일견 자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 도농관계의 사회문화적 구성이 근대전환기, 중화민국시대, 그리고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역사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가 보여주는 특성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해서 1978년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 도농관계의 변화궤적을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그 이면의 정치경제적·문화적 심급들을 포착함으로써, 오늘날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의미심장한 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조영남,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 p.311.

5) Ferguson, James, “The country and the city on the Copperbelt.”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Press, 1997;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The Hogarth Press, 1973.

6) 费孝通, 『乡土中国』, 上海: 世纪出版集团, 2007; 费孝通, 『中国绅士』,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Faure, David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Publishers, 2002; Mote, Frederick, “A millennium of Chinese urban history: form, time and space concepts in Soochow,” *Rice University Studies* 59: 35-65, 1973; Skinner, G. William,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2. 전근대 중국의 도농연속체

역사학자들은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예외주의’(exception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해서 접근해왔다. 예외주의는 전근대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문화적·사회경제적 특수성과 차별성에 방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보편주의는 도시의 발달과 도농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국과 서구의 통문화적 유사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관점이다. 전자는 전근대 중국의 도시가 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농촌 배후지에 깊숙이 착근되어 있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입각해서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가 서구 및 근현대 중국의 경우와 달리 당시 사회의 문화적 위계와 권력관계에 큰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⁷⁾ 다시 말해, 예외주의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구분과 도농격차는 서구 및 근현대 중국의 경우만큼 뚜렷하지 않았고 사회경제적·문화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한다.⁸⁾ 하지만 보편주의는 전근대 중국의 도시들이 중세 후기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유럽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농촌적인 것과의 명확한 대조 속에서 발전시키고 고착화시켰다는 입장을 취한다.⁹⁾ 이 절에서는 먼저 이들 두 가지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전근대 중국 도농관계의 특수한 구성과 도농구분의 변화적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근대 중국의 도시 발달과 특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대체로 서구와 비교해서 중국의 사회적·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윌리엄 스킨너(William Skinner), 프레더릭 모트(Frederick Mote), 데이비드 포르(David Faure), 에블린 로스키(Evelyn Rawski) 같은 학자들은 전근대 중국의 도시 발달 궤적에서 상당한 정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발견하고, 이에 입각해서 명청대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일종의 ‘사회문화적 연속체’(socio-cultural continuum)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외주의적 관점은 윌리엄 스킨너가 편집한 『명청대 중국의 도시』(City in Late Imperial China)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¹⁰⁾ 예를 들어, 모트는 명대 초기 수도였던 남경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장에서, 명청대 중국 도농관계의 구성에서 관찰되는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그는 “도시가 농촌과 비교해서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여주거나 보다 수준 높은 문명을 표상한다는 관념은 우리 서구의 문화적 전통에서 벗어난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¹¹⁾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 스킨너는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문화적 격차는 계급과 직업(양자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그리고 지

7) Mote, Frederick, “The Transformation of Nanking, 1350-1400,” in G.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Mote 1973, 앞의 글.

8) Rawski, Evelyn S., “Problems and prospects,” David Johnson, Andrew J. Nathan, and Evelyn S. Rawski, (eds.),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Whyte, Martin King, “Town and country in contemporary China,” *Comparative Urban Research* 10 (1): 9-20, 1983.

9) Rowe, William T., *Hankow: Conflict and Community in a Chinese City, 1796-189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10) Skinner 앞의 책.

11) Mote 앞의 글, p.102.

방(정교하게 구축된 위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도시와 농촌 배후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¹²⁾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도농연속체’(rural-urban continuum)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도농구분은 명청대 중국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위계와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중심적 요인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³⁾

학자들은 이러한 도농연속체가 명청대 중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구현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루한차오(Lu Hanchao)는 20세기 초 상해가 농촌 배후지와 대비되는 도시적 모더니티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서, 명청대 도농연속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세 가지 사회문화적 층위를 제시한다. 첫째는 농촌공동체 내 신사층의 현존, 둘째는 도시와 농촌 간 문화적·종교적 삶의 연속성, 그리고 셋째는 “유럽의 도시를 그 배후지 농촌지역과 분리시켰던 도시적 정체성, 기념비, 혹은 시민”의 부재이다.¹⁴⁾ 첫 번째 층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인류학자인 페이샤오통(費孝通)¹⁵⁾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이샤오통은 중국의 신사층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전근대 중국 사회의 도농구분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교류와 소통을 매개한 신사층의 존재로 인해 근현대 중국의 도농이분법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종교인류학자 스테판 포이츠왕(Stephan Feuchtwang)의 중국 민간신앙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두 번째 층위를 잘 드러내 준다.¹⁶⁾ 포이츠왕은 중국의 종교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에 기반해서 풍수, 성황숭배, 조상숭배 같은 민간신앙의 보편적 틀이 전근대 중국사회의 도시와 농촌을 문화적으로 통합시킨 우주론적 준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⁷⁾ 전근대 중국의 신사층과 농민은 서로 상이한 종류의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양자에 공통적인 일군의 의례들을 수행”¹⁸⁾했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사이에 실질적인 종교문화적 연속체가 구축되어 있었다.¹⁹⁾ 왕리핑(Wang Liping) 또한 명청대의 한 도시가 농민들의 연례적인 성황묘 순

12) Skinner 앞의 책, p.269.

13) Faure, David and Tao Tao Liu 앞의 책; Faure, David, “What made Foshan a town? The evolution of rural-urban identities in Ming-Qing China,” *Late Imperial China* 11(2): 1-31, 1990.

14) Lu, Hanchao, “Urban Superiority, Modernity, and Local Identity: a Thank Piece in the Case of Shanghai,” in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p.127.

15) 費孝通, 2006.

16) Feuchtwang, Stephan, “School temple and city god.”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Feuchtwang, Stephan, *Popular Religion in China: The Imperial Metaphor*, Richmond: Curzon Press, 2001; Feuchtwang, Stephan, “Theorizing place.” S. Feuchtwang (ed.), *Making Place: State Projects, Globalization and Local Response*, UCL Press, 2004.

17) 공간에 대한 포이츠왕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중국사회 민간신앙의 보편주의적 기능이 현대 중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도시, 읍내, 촌락 등에 있는 분묘와 지역 사원의 풍수는 봉건전제군주 체제의 종말(1911)을 고한지 한참이 지나고 민국시기와 사회주의적 근대화 시기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륙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다”(Feuchtwang 2004, p. 24).

18) Liu, Tao Tao and David Faure, “Introduction: what does the Chinese person identify with?” Tao Tao Liu and David Faure (eds.), *Unity and Diversity: Local Cultures and Identities in China*,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6, p.2.

례를 통해 농촌 배후지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⁰⁾ 유사하게 자오셔위(Zhao Shiyu)는 명청대 중국의 종교문화에 관한 한 연구에서, 공동체적 삶의 종교적 재현을 통해 도시, 읍내, 촌락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논증한다.²¹⁾ 따라서 명청대 중국의 도농구분은 상이한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이라기보다 행정단위 혹은 관료제적 위계의 한 형태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층위는 “(도시와 촌락 사이의 다양하고) 빈번한 커뮤니케이션과 인구의 이동이 도시의 우월성이라는 관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 지역을 통합했다”²²⁾라는 루한차오의 주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배후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흐름의 높은 빈도는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과 시민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무화시켜버렸다. 또한 전근대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동했던 친족과 종족조직의 역동성으로 인해 인구의 쌍방향적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³⁾ 도농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친족조직이 갖는 중요성은 사회주의혁명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인 친족-종족체계를 해체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절에서 이루어짐).

한편,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은 명청대 중국의 도농연속체라는 관념이 중국의 사회문화적·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과대평가’, 그리고 인구·화폐·문화의 도시 집중과 도시의 행정적·상업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과소평가’에 동시에 입각해 있다는 논거로 반박한다. 이러한 관점은 작스 게르네(Jacques Gernet)²⁴⁾의 연구 같은 아주 초창기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이 예외주의와 논쟁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체계화된 것은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²⁵⁾ 윌리엄 로워(William Rowe),²⁶⁾ 조셉 에셔릭(Joseph Esherick)²⁷⁾ 등의 역사학자들에 의

19) Cohen, Myron L.,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s,’”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Freedman, Maurice, “O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nese religion,” Arthur Wolf (ed.), *Religion and Ritual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20) Wang, Liping, “Tourism and spatial change in Hangzhou, 1911-1927,”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21) Zhao, Shiyu, “Town and Country Representation as Seen in Temple Fairs,” in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22) Lu 앞의 글, p.127; 또한 Mote 앞의 글과 Skinner 앞의 글을 보라.

23) Freedman, Maurice, *Lineage Organization in Southeast China*. London: Athlone, 1958; Watson, Rubie Sharon, *Inequality among Brothers: Class and Kinship in South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Eberly, Patricia B. and James L. Watson (eds.),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24) Gernet, Jacques, *Daily Life in China on the Eve of the Mongol Invas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25) Johnson, David, “The city-god cults of Tang and Sung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5(2): 413-17, 1985.

26) Rowe 앞의 책; Rowe, William, “A Millennium of Chinese Urban History: Form, Time and Space Concepts in Soochow,” *Rice University Studies* 59: 35-65, 1973.

27) Esherick, Joseph W., “Modernity and nation in the Chinese city,” Joseph W. Esherick (ed.), *Re*

해서이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적인 이론적 가정은 오늘날과 같은 명확한 도농구분이 전근대 중국사회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것이 개인 및 집단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단층의 중요한 토대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로위는 중국의 상업도시 한코우(汉口)에 관한 일련의 역사적 연구에서 19세기 중국의 도시가 근대 초 서구의 도시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코우는 원거리무역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원거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의 전문화, 인구의 경제적 계급분화보다 우세한 직업적·종족적 집단화, 국가 행정위계로부터의 상대적 자유, 강한 도시공동체적 유대감과 공적영역의 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의 대도시들과 상당 정도 닮아있었다.²⁸⁾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근대 초 유럽의 도시들이 “폭동과 소요의 중심지”²⁹⁾였는데 반해, 한코우에서는 폭동과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다는 점뿐이다. 이와 같은 로위의 이론적 틀을 중국과 유럽의 통문화적 유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예외주의에 반대되는 보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존슨 또한 독특한 문화적 실체로서의 도시와 도시성이 당송대에 이미 출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외주의적 접근을 논박한다.³⁰⁾ 에셔릭도 명청대에 이미 독특한 도시문화가 존재했음을 논증함으로써 로위와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그가 말하는 도시문화는 “당시 소설 그리고 도시 상인이나 문인들의 삶 속에서 책방, 골동품 상점, 유곽, 찻집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생활양식으로서 농촌적 삶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³¹⁾이었다.

다른 한편, 보다 최근에 데이비스 포르³²⁾는 예외주의적 관점이 사람·화폐·문화의 도시 집 중뿐만 아니라 도시의 행정적·상업적 기능을 과소평가했다는 보편주의 진영의 비판에 대해 다소 절충주의적인 논지를 제시한다. 그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연속체가 단순히 “중국인들이 읍성이나 도시로의 인구집중, 도시의 변성, 혹은 도시의 행정적·상업적 기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시나 읍성 주민들이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저관점이 촌락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³³⁾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촌락 주민들뿐만 아니라 읍성과 도시 주민들도 읍성과 도시를 촌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것이다”³⁴⁾라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개괄한 두 이론적 진영 사이의 논쟁은 중국학 연구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지적 아젠다이다. 하지만 이들 두 진영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 합의는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비록 다양한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중국의 도농구분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문화적으로 보다 현저해지고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차별적으로 변화했다는

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28) Rowe 앞의 책, pp.3-5.

29) Rowe 같은 책, p.6.

30) Johnson 앞의 논문.

31) Esherick 앞의 글, p.11.

32) Faure and Liu 앞의 책.

33) Faure and Liu 같은 책, p.5.

34) 같은 책.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³⁵⁾ 즉 전근대 중국 도농관계의 사회문화적 구성이 근현대로의 역사적 전환과 함께 급진적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적 합의는 전근대 중국사회에 일정 수준의 도농연속체가 존재했음을 방증하고, 우리를 보다 생산적인 질문으로 유도한다. 근대 전환기 중국 도농관계의 변환이면에 작동했던 문화적·정치경제적 기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러한 변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중국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경험한 역사적 변환과, 그것이 국민당 치하 중국 도농관계의 재구성에 대해 갖는 합의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3. 진보적 도시 vs. 봉건적 농촌

이제 농촌의 일반적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로, 도시의 일반적 이미지는 미래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³⁶⁾

1) ‘대불황’과 모더니티에 대한 열망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의 수 십 년은 중국이 2천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봉건전제 군주체제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체제로 전환되는 급진적인 변화의 시기였다.³⁷⁾ 모든 종류의 시대적 변환이 일정 정도 구체제의 급진적인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급격한 부상을 수반하듯, 중국 또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구체제인 청나라의 급속한 붕괴를 목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국은 구미 사회들의 경험과 달리 일련의 내적 혼란과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경제적 침탈을 포함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국면”³⁸⁾에서 근대의 문을 열었다.

중국은 서구와 조우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일련의 내적 위기로 인해 사회경제적·정치적 붕괴에 직면해 있었다. 청왕조는 일찍이 건륭제 말기부터 일정한 쇠락의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무렵이었다.³⁹⁾ 중국사학자 마크 엘빈(Mark Elvin)⁴⁰⁾은 청나라의 급격한 쇠락에 기여한 내적 위기의 결정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

35) Esherick 앞의 글; Faure and Liu 앞의 책; Kipnis, Andrew, “Within and against peasantry: backwardness and filiality in rural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 (1): 110–135, 1995.

36) Williams, Raymond, 앞의 책, p.297.

37) 역사학자들은 입장에 따라 근대 중국의 시발점을 매우 상이하게 설정한다. 일부는 아편전쟁(1840)을 또 다른 이들은 신해혁명(1911)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근대 중국의 정확한 시대구분이 이 글의 중심적 논제는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대신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의 보다 광범위한 시간대를 근대 중국의 시발점으로 느슨하게 설정했다.

38) Gernet, Jacques,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567.

39) 같은 책.

40)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pp.298

하고 있다. 엘빈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힘들인 생산성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유익한 발명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를 들어, 농업잉여가 감소하면서 1인당 소득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했으며, 생산자원과 자본의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는데 반해 노동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한 농업과 운송 기술의 발달이 전통적 한계치까지 도달해서 “단순한 개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들 모든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농민과 상인 모두 “노동절약형 기계의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합리적 전략으로 “자본과 고정 자본의 경제화”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거대하지만 거의 정체된 시장이 생산체계 내에 창조성을 추동하는 병목현상을 창출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부족이 발생했을 때 값싼 운송수단에 의존하던 상인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과 기계를 개선하려는 시도 대신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⁴¹⁾ 엘빈은 이와 같이 극복 불가능한 국면을 “고도평형상태의 덫”(high-level equilibrium trap)이라고 부른다. 이 덫은 주요 자원의 심각한 부족, 기술적 불연속성, 전근대적 한계치에 도달한 농업산출 등으로 인해 초래되었고, 결과적으로 제국의 극적인 쇠락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심각한 내적 위기와 더불어 서구 식민세력의 침략은 작스 게르네가 말하는 청왕조 말기 “대불황”(great recession)⁴²⁾이 초래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강력한 문명으로서의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하게 된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시작된 이 불황은 태평천국의 난(1850-64), 청일전쟁(1894), 의화단의 난(1900) 등 일련의 역사적 동란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대불황은 1911년 청조의 몰락과 중화민국의 건국으로 첫 번째 전환점에 도달하게 된다. 근대 전환기의 급격한 역사적 변환 속에서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은 급진적으로 상이한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로부터 독특한 도시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권력 체계가 부상하게 된다. 이 새로운 지식/권력 체계가 배태한 문화적 위계는 도시와 농촌을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시간 프레임 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도농구분의 사회문화적 구성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서구 모더니티와의 조우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것이 향후 중국 도농관계의 전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진 서구 모더니티와의 조우는 중국인들 사이에 심대한 문화적·사회심리학적 트로마를 초래했고, 이 트로마적 경험이 중국 도농관계의 재구성과 그것의 향후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수 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헤게모니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서구적 모더니티와 접촉하면서 급격한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서구와의 조우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상실한 중국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주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전면적인 주변화는 강력한 중화의식을 수 천 년 동안 유지해온 중국인들에게 역사상 전례 없는 경험이었다. 따라서 서구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패배와 그 결과 빚어진 자신의 문화

-316.

41) 앞의 책, p.31.

42) Gernet 앞의 책.

적 전통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 근현대 중국의 자기정의와 급진적 사회변혁의 전체 역사를 규정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³⁾

설상가상으로 1905년 과거시험이 폐지되면서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중국의 전통적 이상과 제도로부터 급격하게 괴리되기 시작했다.⁴⁴⁾ 중국 지식인과 엘리트의 탈구는 신해혁명 오래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혁명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가 군벌경쟁, 심각한 경제적 불황,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훨씬 더 심각해지게 된다. 이들 모든 역사적 격랑을 목도한 신해혁명 전후 지식인과 엘리트들은 중국의 역사적 트로마와 사회적 혼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면서 강력한 자괴감과 패배의식뿐만 아니라 모더니티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그들의 관심과 고민은 다양한 형태의 사상, 문학,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다양성 이면에는 ‘중국적 전통의 자기부정을 통한 모더니티의 구축’이라는 명확한 일관성이 깔려있었다.⁴⁵⁾

유교 이데올로기와 봉건전제군주체제가 해체되면서,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들은 중국사회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급진적인 대안을 절박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서구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들이 서구적 모더니티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서구를 세계의 중심으로 격상시킨 산업화·도시화·현대화라는 비전을 통해 중국의 트로마를 치유하고자 했다. 따라서 중국 지식인들이 조국을 역사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서구적 모더니티의 거울에 비추어 중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일이었다.⁴⁶⁾

서구와의 접촉과 함께 중국사회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단지 서구의 기술, 과학, 상품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같은 서구의 다양한 사회사상과 이념들도 중국에 유입되었는데, 이들 모두 중국인들의 자기정의와 정체성 그리고 모더니티에 대한 전망 일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은 쇠락하고 있는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꿈꾸던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 중 하나였다. 다시 말해, 과학, 기술, 위생, 정치형태, 사회사상, 경제체계 등 서구 모더니티의 많은 요소들이 중국 지식인들의 중국 근대화 전망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들이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근대화된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진화론

43) 근현대 중국은 아편전쟁이 유발한 변법자강운동부터 시작해서 1911년 신해혁명, 1919년 5.4 운동, 1949년 중국공산당의 국가권력 장악,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1966-76), 1978년 개혁개방,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급진적인 변혁운동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변혁운동으로부터 당대 중국의 급진주의 이면에 깔려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자기정의를 출현하게 된다.

44) Yu, Ying-shih, “The radicalization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and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과거제는 전근대 중국의 문인-신사 계급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개인적·집단적 욕망을 실현하는 거의 유일한 출구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이념의 제도적 축이기도 했다.

45) Dean, Kenneth, “Despotic empire/nation-state: local responses to Chinese nationalism in an age of global capitalism,” Kuan-Hsing Chen (ed.), *Trajectories: Inter-Asia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Yu 앞의 글.

46) Tang, Xiaobing, *Global Space and the Nationalist Discourse of Modernity: the Historical Thinking of Liang Qicha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의 도입이었다.⁴⁷⁾

당시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모더니티와 강력한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아젠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구 모더니티의 거울에 비추어 중국적 전통과 유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사회진화의 사다리 가장 하단에 위치시키고 서구를 가장 상단에 위치시키는 지적 아젠다를 중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설정했다. 인류학자 에이와 옹(Aihwa Ong)이 지적하듯, “마르크스의 역사적 결정론을 통해 재구성된 사회진화론과 루이스 모건(Lewis H. Morgan)의 야만-문명 이분법의 심대한 영향력이 많은 중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열등한 인종과 문화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⁴⁸⁾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회진화론이 중국에 도입되면서 훨씬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을 연구하는 일부 인류학자들은 중국 내에서 전개된 사회진화론의 계보와 토착화 과정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메이페어 양(Mayfair Yang)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이동하는 이론”(traveling theory)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중국 특유의 모더니티 기획과 근대화 프로젝트에 미친 서구 사회사상의 심대한 영향력을 조명한다.⁴⁹⁾ 양은 “한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관념이나 이론은 힘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 특정한 역사적 시대와 민족문화에 속한 하나의 이론은 다른 시대와 상황 하에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이드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에 입각해서 “루이스 모건의 19세기 인류학적 지식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경유해서 20세기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양은 중국 내에서 사회진화주의의 독특한 응용과 토착화 그리고 식민주의의 효과를 “내적 식민주의”⁵⁰⁾라는 개념 하에서 조명한다. 바로 이 내적 식민주의의 프레임 내에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살아 있는 화석”으로 재현되고 물상화되는 반면, 한족은 보다 문명화되고 진화한 다수로 묘사된다.⁵¹⁾ 신해혁명의 정신이었던 쑨원의 三民主義 또한 모더니티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전망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도농관계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방식도 바로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틀을 통해 규정되기 시작했다.

2) 사회진화론과 도농이분법

47) Ong, Aihwa, “Anthropology, China and modernities: the geopolitics of cultural knowledge,” Henrietta L. Moore (ed.), *The Future of Anthropological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Lin, Tongqi, “A search for China's soul,”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Schein, Louisa, “Gender and internal Orientalism in China,” *Modern China* 23 (1): 69-98, 1997.

48) Ong 앞의 글, p.67.

49) Yang, Mayfair, “Tradition, traveling anthropolog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in China,” Henrietta L. Moore (ed.), *The Future of Anthropological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50) 루이지아 샤인(Louisa Schein 1997)은 중국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내적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통해 논의한다.

51) Yang 앞의 글, pp.95-96.

중화민국시대가 시작될 당시 중국 도농관계의 재구성은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봉건제국적 정치체제, 관료제, 경제체계의 붕괴가 도농관계의 재구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구질서의 몰락과 함께 도시에 집중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과 엘리트 집단이 전통적인 신사-문인 계급을 대신해서 부상하게 된다. 신사층의 몰락은 전근대 중국의 도시와 농촌을 통합했던 매개자의 소멸을 의미했다. 신사-문인 계급이 근대적 도시의 꿈을 좇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명청대를 특징지었던 도농연속체가 그 문화적·사회경제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개체를 상실하기 시작했다. 탕샤오뵙(Tang Xiaobing)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사계급의 절망적 상황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라는 두 시간적 범주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라는 두 공간성 사이의 소통불가능성이라는 형태로 정확하게 재현되었다”⁵²⁾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중국의 경제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부문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농촌부문은 ‘본원적 축적’이라는 황폐화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와 같이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중국의 농촌과 도시 사이에 존재했던 오래된 균형은 급속하게 파괴되었고, 이때부터 농촌은 도시의 부정적이고 퇴보한 대척점으로 정의 및 재현되고 인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농촌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편입과 점증하는 도농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당시 도농관계의 재구성을 규정한 유일하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다. 신해혁명 지식인들의 농촌에 대한 부정적 재현이 때로는 당시 일부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포르의 연구에 따르면, 장쑤성과 광둥성 농촌 지역, 특히 해외 교역용 상품을 생산하던 지역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하기에 사회적으로도 적합한 장소”⁵³⁾였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이 묘사한 농촌의 일반적인 모습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이는 이들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성과 극적으로 대조적인 재현방식이었다. 이러한 재현과 실제의 불일치는 도농관계의 사회문화적 구성을 규정하는 지식/권력 체계와 담론의 중요성을 웅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사회진화론 및 그와 관련된 근대주의적 담론을 도입하고 내면화한 것이 당시 중국 도농관계의 재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서 중국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선형적 진보의 시간적 이미지를 통해 농촌을 낙후성과 연결시키고 도시를 진보와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5.4운동은 중화민국 지식인과 엘리트들의 모더니티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열망이 가장 의미심장하게 드러나는 사건 중 하나이다. 5.4운동 지식인들은 근대화된 중국을 상상할 때 다른 아닌 도농구분을 통해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것과 전통적이고 낙후된 것 간의 차이를 구체화했다. 도농관계의 담론적 구성에서 발생한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시발점은 “도시를 그 주변의 농촌 배후지와 차별화하는 과정과 특유한 도시문화라는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킨 1900년대 청나라 개혁정책의 정부주도 근대화 프로젝트”⁵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전근대 중

52) Tang 앞의 책, p.171.

53) Faure, David, *The Rural Economy of Pre-Liberation China: Trade Expansion and Peasant Livelihood in Jaingsu and Guangdong, 1870-1937*, Hong Kong,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202.

54) Harrison, Henreitta, “Village identity in rural north China: a sense of place in the diary of Liu

국 사회에서 정체성 형성의 핵심 축이었던 지역주의가 도농구분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도시가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진화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가 중국의 개별 지역들이나 성들 사이의 차이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농구분은 아직 완전히 사회진화론의 선형적인 시간 프레임 속에서 상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적 동향이 사회진화론의 선형적 시간성을 받아들여 농촌을 “전통 및 과거와의 연속성의 장소”로, 도시를 “근대화와 변화의 장소”⁵⁶⁾로 상상하기 시작한 것은 신해혁명을 전후한 몇 십 년 동안이었다. 이즈음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경제적 엘리트 사이에서 도농구분이 중국의 발전과 근대화를 전망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문학은 중화민국 지식인들이 근대주의적 전망을 표현했던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루쉰(魯迅)에게 농촌은 “중국사회의 고립과 비인간성의 표상”에 불과했다. 소설에서 “루쉰은 자신의 고향(농촌)을 증오의 감정으로 회상했고, 그것을 중국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으며, 독자들에게 사회개혁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난했다.” 농촌에 대한 이와 같은 적나라한 자기 부정은 중국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미 청대 소설에서도 도시정체성을 분리된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긴 하지만, 루쉰처럼 농촌을 노골적인 부정형으로 재현하는 사례는 없었다.⁵⁷⁾

루쉰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치하 중국의 많은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통해 근대주의적 사회개혁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분투했다. 서구에서 교육받은 중화민국시대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펑요우란(馮友蘭)이 1930년대에 쓴 책 『新事論』의 한 단락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조국의 근대화를 전망할 때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현했는지를 잘 드러내 준다.

도회지 사람과 농촌 사람의 차이에 관해 인구에 회자되는 농담이 하나 있다. 이 농담에 따르면, 도시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보다 더 유식하고, 재주가 많으며 유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시의 개들도 농촌 개들보다 더 유식하고, 재주가 많으며 유복하다. 이것은 비록 농담이긴 하지만 반드시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 일부 도회지 개들의 생활수준이 농촌 사람들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90% 이상의 농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도회지 개들이 먹는 것보다 못하다. ...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면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일 것이고 귀에도 좋지 않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농촌 사람이 도시에 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좋게 들릴 것이다. ...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농촌이었다면 중국은 항상 도시였다. 가끔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도시를 침공하거나 심지어 점령하기도 했지만, 도시민은 여전히 도시민이었다. 촌놈들이 도시민을 촌놈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오히려 촌놈들이 도시민으로 바뀌었다. ... 중국인들의 도시민 자격은 수 천 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백 년 전 역사상

Dapeng,”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Oxford: Palgrave, 2002, pp.103-104.

55) Liu, Tao Tao, “Local identity in modern Chinese fiction and fiction of the native soil (xiangtu wenxue),” Tao Tao Liu and David Faure (eds.), *Unity and Diversity: Local Cultures and Identities in China*,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6, p.143.

56) Ferguson 앞의 글, p.137.

57) Liu 앞의 글, p.145.

유래 없는 변화를 겪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도시민 자격을 상실하고 촌놈이 되어 버렸다. ... 오늘날 세계에는 구미의 나라들이 도시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도시민이다. ... 산업혁명 이래 서양이 도시로, 동양이 농촌으로 바뀌어 버렸다.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동양이 서양에 종속되어 있다.⁵⁸⁾

이 구절은 중화민국시대 지식인들이 1930년대에 이미 도농관계의 사회진화론적 구성을 완전히 내면화했다는 사실을 풍부하게 드러내주는 텍스트이다. 여기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농촌이 항상 모든 면에서 도시보다 열등하다—이는 전근대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과 비교할 때 극적인 변화이다—는 사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명예롭게 도시의 지위에 오른 서구와의 관계에서 중국이 불명예스러운 농촌의 위치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농촌과의 관계에서는 농촌을 전면적으로 폄하하고, 서구와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촌놈으로서의 ‘열등콤플렉스’를 발전시키게 된다. 농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스테레오타입이 1949년 사회주의혁명 이전까지 많은 중화민국 지식인과 엘리트들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요우란의 글이 드러내주는 바와 같이, 중국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도 마찬가지로 도농 이분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즉 중화민국의 지식인들은 도시와 모더니티를 봉건적이고 낙후한 농촌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면서, 도시를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재현했다.⁵⁹⁾

더욱이, 도농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은 근대적 산업문화가 중국 농촌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농촌생활과 농장노동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성을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켈(Elisabeth Köll)은 19세기 말-20세기 초 난통(南通)현의 다성(大生) 면직공장에 대한 연구에서, 근대적 공장과 노동규율이 농촌에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농업노동과 농촌적 생활양식이 주변화의 운명을 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장 문 앞의 시계탑, 새로운 노동과정과 노동공정, 엄격하고 성문화된 작업장 규칙 등으로 상징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장제 규율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 문화”가 농업노동과 촌락의 생활양식을 “부차적이고 심지어 낙후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⁶⁰⁾ 농촌은 “태양력, 7일 1주제, 1일 24시간제로 작동했던 도시”⁶¹⁾와 달리 근대적 시간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낙후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이제 농촌과 도시의 간극은 근대적 시간규율이 확산되면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연화되었고, 이는 곧 “농민적 시간과 공장제적 시간”⁶²⁾의 분리를 의미했다.

58) 冯友兰, 『新事论』. 上海: 远东书局, 1972 (1939), pp.38-55.

59) 또한 Dong, Yue Madeleine, *Republican Beijing: The City and Its History*,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Musgrove, Charles D., “Building a dream: constructing a national capital in Nanjing, 1927-1937,”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을 보라.

60) Köll, Elisabeth, “Factories in the countryside: the industrial workforce and social division in Nantong county, 1895-1937,”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p.7.

61) Esherick 앞의 글, p.11.

62) Smith, Thomas C., “Peasant time and factory time in Japan,” *Past and Present* 111: 164-197, 1

하지만 당시 중국 농촌이 단순히 봉건적 낙후성의 표상으로서 부정적으로만 재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은 중화민국 지식인들의 노스탤지어적 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상화되고 찬양되기도 했다. 류(Liu 1996)의 문학적 분석에 따르면, 중화민국 시절의 작가들이 농촌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향수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폐이밍(廢名, 1901-1967)은 「대나무 숲 이야기」(竹林的故事)⁶³⁾라는 소설에서 “농촌 사람들의 순박함을 도시 주민들의 각쟁이 기질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애정을 표시한다.” 이 이야기는 “저자가 도시에 비해 농촌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꼈던 목가적 이상에 대한 열망으로 넘쳐난다.”⁶⁴⁾ 한편 몇몇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수반하는 부정적 효과를 비판하면서 농촌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량치차오(梁啟超)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과학발달의 결과 산업생산조직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고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적 삶과 외적 삶의 조화를 찾으려고 할 때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상실감을 느낀다. 가장 명백한 예는 현재의 도시생활과 과거로부터 이어진 촌락생활이 완전히 모순적인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이다.⁶⁵⁾

이렇게 량치차오는 도시화 과정이 수반하는 상실감과 소외를 근대적 불만족의 명백한 징후로 보았다. 중화민국 시절의 농촌에 대한 향수는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도시화·산업화·근대화라는 이름하에 스스로 파괴한 것에 대해 향수를 느꼈다는 점에서,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⁶⁶⁾가 근대 초 유럽에서 관찰한 현상과 유사하게 보인다. 중국 지식인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는 향후 도농관계가 양가적으로 구성될 단초를 남겨둔 채, 1949년 사회주의혁명 이후 반전통주의적 정치캠페인과 농민의 정치적 이상화가 부상하면서 급속하게 사라져버리게 된다.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 시대에는 농촌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루쉰의 관점이 중국 농촌을 재현하는 데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관점으로 인정받게 된다.⁶⁷⁾ 사회주의 시절 30년 동안 수면 하에 있던 농촌에 대한 향수는 1978년 개혁개방 후 변화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상이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으로 다시 부상하게 된다.

4. 농촌의 정치적 이상화와 도시편향

아마도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농민들이 혁명의 원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과실은 도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일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두 개의 카스

986.

63) 廢名, 『竹林的故事』, 北京: 华夏出版社, 2009(1925).

64) Liu 앞의 글, p.45.

65) Tang 앞의 책, p.181에서 재인용.

66) Williams 앞의 책.

67) Liu 앞의 글, pp.146-147.

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불의와 분노를 낳고 인간의 재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⁶⁸⁾

1) 중앙화와 도농분리

중국공산당은 중국을 ‘봉건적’ 과거와 ‘반식민지적’ 현재로부터 동시에 ‘해방’시키기 위한 수십 년간의 힘겨운 투쟁 끝에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하게 된다. 약 100년 동안의 혼란과 위기가 남긴 역사적 잔해 위에서 출발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근대화라는 혁명과업에 착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질서와 사회적 통합을 회복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파괴되어버린 상태에서 사회주의의 꿈을 최대한 빨리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급진적인 개혁 아젠다에 착수해야 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집체화였다. 사회주의 중국의 중앙정부는 한편으로 토지개혁을 통해 대륙의 광활한 토지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절대적인 국가소유권을 확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체화를 통해 전체 중국 농촌을 생산소조, 생산대대, 인민공사를 포함하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위계화된 집단농장 체제로 편입시켰다. 사회주의 정부는 사회조직의 집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후코우’(戶口)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중국의 인구는 도시민과 농민이라는 “두 개의 카스트”⁶⁹⁾로 나누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 초기에 이루어진 토지소유권과 사회조직의 급진적 개혁이 마오쩌둥 시절 도농관계와 도농구분의 특징적인 변화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회주의적 개혁과 함께 전체 사회가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아마 마오쩌둥 정권 첫 10년은 수 천 년 중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정치경제적 중앙집중화를 달성한 시기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통제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중앙화는 도농관계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주의 중국이 혁명적으로 추진한 정치경제적 중앙화는 농촌 배후지에 대한 도시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착근 상태를 급격하게 해체시켜버린다.⁷⁰⁾ 사회주의 혁명이 신사-문인 계급, 친족과 종족 조직, 민간 신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윌리엄 스킨너⁷¹⁾가 도시와 농촌의 핵심적 매개체라고 주장했던 시장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 도농연속체의 사회적 토대를 완벽하게 와해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토대의 붕괴와 함께 농촌과 도시를 통합했던 사회경제적·문화적 연속체가 엄

68) Whyte, Martin King, “City versus countryside in China’s development,” *Problems of Post-Communism*, M. E. Sharpe, Inc., 1996, p.9.

69) Potter, S. H and Potter, J. M., *China’s Peasants: the Anthropology of a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70) Davis, Deborah, “Introduction: urban China,” Deborah Davis, S., Richard Kraus, Barry Naughton, and Elizabeth J. Perry (eds.), *Urban Spaces in Contemporary China: the Potential for Autonomy and Community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71) Skinner 앞의 책.

격하고 분명한 도농구분으로 변환되기에 이른다. 비록 신해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도농연속체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미 침식되기 시작했지만, 그 제한적인 영향으로 인해 도시와 읍성은 여전히 상당 정도 농촌 배후지에 착근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중국의 농촌은 도시로부터 문자 그대로 분리되어 버린다. 데보라 데이비스(Deborah Davis)는 마오쩌둥 치하 중국 도시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한 책의 편집자 서문에서 다음과 주장한다. “중앙 정부의 계획이 지배하면서, 북경의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도시경제가 기획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의 이전 경험과 다르게 도시의 사업들이 자연적인 농촌 배후지로부터 분리되었고, 도시는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를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마치 해자를 두른 성벽 같이 ‘단단한 경계’를 구축하게 된다.”⁷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농촌과 도시에 각각 상이한 사회조직 원리를 제도화하면서 의도치 않게 진행된 도농분리가 심각한 도농불평등과 도농이원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혁명은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조직적 경험세계를 창출했고, 이는 도농분리와 매우 긴밀하게 대응해서 이루어졌다.”⁷³⁾ 결과적으로 중국의 도시민들은 직업 안정성, 주거보조, 교육기회, 음식, 의료서비스, 퇴직연금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린 반면, 농촌 인구는 부가급여의 혜택 없이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시간제 노동시스템 하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표1>은 사회주의 시절 복지혜택과 사회조직 면에서 구축된 도농격차와 불평등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표1> 복지혜택과 사회조직 상의 도농격차

	도시주민	농촌주민
복지혜택	국가에서 주택, 의료, 교육, 퇴직연금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	수준 낮은 무상 의료와 교육을 제외하고 국가에 의한 여타 사회보장 없음
사회조직	국가가 소유한 단웨이(单位)에서 생활.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과 직업안정성(철 밥그릇) 제공	생산소조, 생산대대, 인민공사 등 위계적으로 조직된 집체적 생산-소비 단위 내에서 생활. 원칙적으로 일한 만큼만 버는 시간제 노동

2) 농촌편향과 도시편향

정치경제적 중앙화가 초래한 농촌과 도시의 급진적 분리는 사회주의시대 전체에 걸쳐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을 특징짓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낳게 된다. 하지만 마오

72) Davis 앞의 책, p.2. 아마 “해자를 두른 성벽”이라는 데이비스의 비유는 사회주의 혁명이 초래한 도농분리를 묘사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전근대 중국의 해자를 두른 성벽은 전쟁 시 군사적 방어를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도시를 그 배후지로부터 공간적으로는 구분하지만, 경계를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문화적 흐름을 제한하지는 않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에 불과했다(Mote 앞의 책; Faure 앞의 책 참조). 하지만 사회주의 중국 초기 단계에 제도화된 도농구분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자유로운 흐름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일종의 철벽으로 작용했다.

73) Whyte 앞의 책, p.14.

쩌둥 체제 하에서 전개된 도농 불평등구조와 도시에 편향된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 주석이 초기에 보여준 친농촌적·친농민적 정서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 혁명의 가장 아이러니한 결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1949년 혁명 이전 보여주었던 농촌편향성과 농민의 정치적 이상화는 차치하더라도, 혁명 직후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당시에는 당의 공식적 담론과 정책이 농촌과 농촌인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었다.⁷⁴⁾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광대한 중국 농촌에 분포하는 거대한 농민인구의 전략적인 동원을 통해 성공했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동원에 주로 의존해서 이루어진 반면,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농촌인구의 정치적 급진화를 통해 혁명의 폭발적인 동력을 축적했다. 따라서 “소련의 발전정책은 혁명 후 도시편향성을 보여주었고, 도시-산업 부문의 눈부신 팽창과 농촌부문의 상대적 불황을 초래했다. 대조적으로 중국공산당이 전국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주로 농민 대중에 의존한 농촌기반 투쟁 덕분이었다. 따라서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이 농민편향성과 농촌문제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⁷⁵⁾ 마오쩌둥과 여타 중국공산당의 아버지들은 적어도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때부터 사회주의 체제 초기단계까지는 농촌편향적인 가치와 태도를 상당 수준 공유하고 있었다.⁷⁶⁾ 농민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마오쩌둥 주석과 그의 공산당 동지들이 농촌 인구나 농촌 지역의 근대화에 우선성을 두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적어도 농촌부문과 도시부문에 동등하게 이익을 가져다줄 균형적인 발전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친농촌적 정향은 공산당의 최종 승리 훨씬 이전부터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창립 4년 후인 1925년 농민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고향인 湖南省에 파견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농민운동고찰보고」(湖南农民运动考察报告)라는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마오쩌둥은 농민을 혁명의 선봉으로 높이 평가했다. “가난한 농민(신사층이 쓰레기라고 부르는)이 없었다면 농촌에서 현 상태의 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했다. 지역 불량배들과 고약한 신사층을 몰아내고 민주혁명을 완수하는 일 또한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난한 농민이 없었다면 혁명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혁명을 공격하는 것이다. 농민의 일반적인 혁명 노선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⁷⁷⁾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다. 중국공산당이 표면적으로 농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보여주고, 도시를 부르주아적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했으며, 도시민보다 농민의 이익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개혁의 실질적인 결실은 도시와 도시민들이 수확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

74) Whyte 앞의 글; Kelliher, Daniel, “Chinese Commu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rediscovery of the peasantry,” *Modern China* 20(4): 387-415, 1994.

75) Kirkby, R. J. R., *Urbanization in China: Town and Country in a Developing Economy, 1949-2000 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4.

76) Whyte 앞의 글.

77) 毛泽东, 「湖南农民运动考察报告」, 1927., De Bary, Theodore and Richard Lufrano, *Sources of Chinese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871에서 재인용.

었다.

어떻게 마오쩌둥의 친농민적인 혁명 열정이 순식간에 도시편향성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농민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부정적인 개념화가 이 질문에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농민대중이 혁명적 사회진보라는 점에서 “포대 속의 감자들”처럼 정치적 자기조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자기조직 능력의 결여로 인해 “농민들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고 (타자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⁷⁸⁾ 농민의 ‘우둔함’과 혁명에서의 부수적인 역할이라는 마르크스의 관념은 마오쩌둥 치하 중국의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내재적인 양면성을 초래하게 된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을 수용한 중국공산당 이론가들에게 “농민은 자신들의 혁명을 주도할 수 없다. 농민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군가는 바로 반동적인 꿈을 꾸는 그들의 황제가 아니라 근대적 프롤레타리아이다.”⁷⁹⁾ 마르크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헌신 속에서 노동자-농민 동맹이라는 관념은 중국공산당이 농민대중에 의지하고 그들을 동원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 역설적으로 농촌편향에서 도시편향으로 전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마르크스주의 역사 진보이론을 옹호하는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한 사회주의 혁명의 지역적 판본을 구축하는 데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딜레마는 바로 농촌인구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성과 도시산업 및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마르크스의 편향성을 화해시키는 일이었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그들은 친농촌주의와 마르크스의 도시편향 사이에서 일정한 이론적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참조한다. 레닌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농민착취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영국이나 미국 같이 가장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혁명 당시 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농민이었던 러시아에서 발생하게 된 역설을 설명한다.⁸¹⁾ 마오쩌둥은 레닌의 이론적 틀에 입각해서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농촌 침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농민의 탈구를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서 차지하는 농민의 중심적 역할을 이론적·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했다. 이러한 틀 내에서, 자본과의 관계를 통해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명되는 프롤레타리아와 달리, 중국의 농민은 19세기 중반 외래 제국주의 세력의 첫 번째 침략 이래 장기적으로 농민경제를 황폐화시켰던 제국주의적 착취에 의해 급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론적 타협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친도시적·친프롤레타리아적 이론화가 농민의 급진적 역할을 쉽게 무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농민-프롤레타리아 동맹이라는 쟁점에 직면했을 때 프롤레타리아의 지도력에 우선권을 부여해버리는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이와 같은 이론적 타협으로 인해, 공산당의 정책과 정치적 캠페인뿐만 아니라 마

78)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R.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W. W. Norton & Co., 1978, p.608.

79) Kelliher 앞의 글, p.392.

80) 앞의 글, p.393.

81) Lenin, V. I., *Imperialism: the Highest State of Capitalism*, International Publisher, 1969; Lenin, V. I. *Allianc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ry*,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4.

오쩌둥 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도농관계의 재구성에도 애매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양가성이 하나의 상수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⁸²⁾

이러한 내재적인 양가성은 마오쩌둥 체제의 표면적인 친농촌적 성향이 아주 용이하게 도시편향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토양을 제공했다. 이후 마오쩌둥이 보여준 태도는 친농촌적 성향이 얼마나 쉽게 도시편향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49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28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마오쩌둥의 연설은 “후난에서 농민조직가로 활동하던 초기의 마오쩌둥 이후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⁸³⁾ 마오쩌둥의 농민관에서 발생한 변화는 그의 연설문 마지막 문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농민을 교육시키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이다. 농민의 경제는 분산적이다. 소련의 경험을 통해 판단하면, 농업의 사회화를 달성하는 데 오랜 시간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의 사회화 없이는 완전하고 공고한 사회주의도 없다. 농업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주로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강력한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인민의 민주적 독재를 통해 이 문제(농촌의 산업화)가 단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⁸⁴⁾

여기서 우리는 마오쩌둥의 친농민적 가치정향이, 혁명은 오직 농민과 전통적 농업체계의 부정, 즉 “강력한 산업”의 발달을 전제로 하는 부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환되는 미묘한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른 아닌 마오쩌둥 자신의 농촌편향성 자체가 이후 그가 보여준 도시편향성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마오쩌둥 시대 도농관계의 발전에 관한 화이트(Whyte)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편향성이 사회주의 중국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현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도시편향성은 1949년과 1978년 사이에 다섯 가지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현되었다. 그것은 점증하는 도농 간 수입격차, (농촌) 이주의 감소와 친족유대의 약화, 상이한 조직체계, 농민과의 강제적인 접촉 및 농민의 오명화, 문화와 관습상의 격차 증가 등이다. 여기서 마오쩌둥과 여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도농분리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 노력의 결과가 역설적으로 둘 사이의 격차를 오히려 더 넓혔다는 것이다.⁸⁵⁾

한편으로 강력한 농촌편향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한 정치적·제도적 도시편향으로 빠져든 마오쩌둥주의 혁명의 이러한 모순적 혹은 양가적인 아젠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화이트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답을 제시한다. “나는 도시주민을 위해 그와 같은 포괄적인 특권을 제도화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도시와 도시적 삶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느꼈던 특별한 공포와 적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 중국공산당은 도시

82) Kelliher 앞의 글.

83) De Bary and Lufrano 앞의 책, p.877.

84) 毛泽东 1949, DeBary and Lufrano 앞의 책, pp.893-894에서 재인용.

85) Whyte 앞의 글, p.11.

를 제압해서 도시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농촌인구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는 또한 도농구분보다 계급(좋은 계급, 나쁜 계급)에 우위를 두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중국공산당이 도농분리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978년 이전 사회주의 시절에는 계급분석과 계급투쟁에 일차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도농격차의 심화라는 문제가 모호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관심의 결여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도농격차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⁸⁶⁾ 정치적 담론에 내재하는 계급 우선성으로 인해, 종교, 종족성, 지역 정체성, 친족관계, 젠더⁸⁷⁾, 연령,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공간성 등과 같은 다양한 차이의 원천들이 무화되어버렸다.

한편, 류타오타오(Liu Taotao)는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역설적인 도시편향성을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조명한다. 류의 주장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오직 공산당의 질서, 즉 개인적 정체성과 지역적 충성심이 부재하는 동질화된 중국 농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정형화된 농민을 찬미하는 데 흥미가 있었을 뿐이다.”⁸⁸⁾ 따라서 친농촌적 가치정향을 보여주던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 농촌과 농민을 봉건적 낙후성의 상징으로 재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다시 말해, 마오쩌둥 체제의 친농촌적 정서는 ‘부정을 통한 해방’, 즉 농촌과 농민을 부정함으로써 농촌과 농민을 해방시키는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오쩌둥 체제의 사회주의적 근대화 담론에 내재하는 강력한 반전통주의도 중국농촌의 오명화에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이는 사회진화주의가 마르크스의 혁명적 목적론을 경유해서 마오쩌둥과 그의 동지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혁명구도에 내재하는 사회진화의 이미지로 인해, 중국의 농촌은 해방된 중국이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부정해야 할 봉건적 과거 및 전통과 필연적으로 겹쳐질 수밖에 없었다.

3) 후코우(戶口)와 농촌의 오명화

중국공산당의 양가적인 이념과 정책 하에서, 대륙의 광활한 농촌 배후지에 흩어져 있던 농촌 인구와 촌락들은 한편으로 진보적 모더니티와 길항관계에 있는 봉건적 낙후성과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한 도시 부르주아의 대적점에 있는 도덕적 올바름과 동일시되었다. 유사하게, 노동자와 도시는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 도시화·산업화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저한 특권을 누리는 한편, 동시에 부르주아적 부패와 반동적 정서의 온상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가적인 이데올로기적·제도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농촌과 농민의 오명화를 초래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1) 도농 간 이주가

86) 같은 글, p.16-17.

87) 메이페어 양 교수는 이것이 중국사회에서 성과 젠더 차이를 제거해버렸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성 지우게”(gender erasur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Yang, Mayfair, “From gender erasure to gender difference: state feminism, consumer sexuality, and women’s public sphere in China,” Mayfair Yang (ed.), *Spaces of Their Own: Women’s Public Sphere in Transnational China*,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88) Liu 앞의 글, p.152.

체계적으로 제한되고, 도농관계가 위계화되었다. 2) 일련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명확한 도농 간 위계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로의 상향 이주는 예외적인 특권으로, 농촌지역으로의 강제적인 하향 이주는 통상적인 형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도시 거주권은 심지어 수년 혹은 수세대 동안 도시에서 살아온 도시주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실할 수 있는 명백한 특권이 되어버렸다. 3) 교육받은 도시 청년층과 도시주민을 농촌으로 ‘하방’(下方)시키는 정치적 캠페인이 수시로 실행되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이른바 ‘상산하향운동’(上山下乡)이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효과를 발휘했다.⁸⁹⁾

농촌과 농민의 오명화를 초래한 이들 세 가지 요인은 중국공산당의 인구이동 통제정책과 수렴된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 인구이동 통제정책은 각 가구가 사회의 한 단위로 인가받기 위해 인구학적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야하는 가구등록제도, 즉 후코우의 제도화였다. 원래 1951년 단순한 인구등록제도로 구상되었던 후코우는 사회주의적 집체화와 계획경제에 필요한 보조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중국의 집체화는 농촌인구를 생산소조, 생산대대, 인민공사라는 위계적인 질서 하에 조직함으로써 완성되었다. 각 단위는 이러한 조직적 위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자원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상급 단위-이러한 연결은 현·성급 정부를 경유해서 중앙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가 할당한 생산량을 채워야할 의무도 동시에 가진다.

제임스 스콧(James Scott)⁹⁰⁾이 다른 맥락에서 지적하는 바처럼, 집단적 생산/소비 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가독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각 집체단위가 그 구성원 수와 인구학적 특징에 입각해서 사전에 생산과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자원과 소비재 모두 인구학적 지표에 따라 각 집체단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하에서 인구의 유동성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조직위계 상 어떤 수준에 있는 집체단위의 경제계획도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중국의 집체적 계획경제체계는 인구이동의 엄격한 통제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코우는 사회주의적 집체화 및 계획경제의 긴박한 필요와 맞물려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인구이동 통제체계로 변질되기에 이른다.⁹¹⁾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구통제체계는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에 대해 상이한 두 종류의 후코우를 제도화함으로써 중국사회 내에 두 범주의 “카스트와 유사한 사회계층”이 형성되도록 만들었다.⁹²⁾ 농촌 후코우를 가진 농촌 주민들은 ‘농민’으로 범주화되고 도시 주민들은 ‘공민’(工人) 혹은 ‘주민’(居民)으로 범주화되었는데, 여기서 농민은 일종의 ‘이등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⁹³⁾ 따라서 농민에게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고, 도시민에게는 모든 면에서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이중 후코우 체

89) Whyte 앞의 글, p.14.

90) Scott, James, *Seeing Like a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91) Potter and Potter 앞의 책; Guang, Lei, “Creating rural-urban boundaries: rural workers in cities and regimes of re-rustication in China,”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2003.

92) Potter and Potter 앞의 책, p.298.

93) Cohen 앞의 글.

계 내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위를 바꿀 수 없었다. 지극히 드물게 지위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또한 엄격하게 규정된 매우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농촌 후코우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 보유자가 평생 동안 농민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그 지위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후코우는 도시와 농촌 간의 비등록 인구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농촌과 도시에 각각 상이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두 종류의 조직 원리와 연동되면서, 다수자인 농촌인구의 희생을 토대로 소수자인 도시인구가 매우 현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특권을 향유하는 공고한 차별구조와 도농이원구조를 낳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구분은 두 개의 카스트와 유사한 지위집단 분류의 토대를 제공했고, 여기서 높은 지위집단은 ‘도시주민’으로 낮은 지위집단은 ‘농촌주민’으로 불렸다. 이 둘 중 어느 집단에 속하든 그 성원권은 모계로 상속되어 태어나는 순간 부여되고,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바꿀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출생과 함께 결정되는 귀속적 지위체계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카스트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 준다.”⁹⁴⁾

하지만 사회주의 중국의 인구이동통제가 아무리 엄격했다 하더라도 도농 간 비등록 이주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다. 마오쩌둥 치하 첫 수년 동안 대규모의 농촌 난민이 도시로 이주했고, 이들이 실업상태에 있던 수백만의 도시노동자 풀에 추가되면서 기존의 도시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후코우 제도가 인구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고하게 자리 잡은 이후에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농촌송환 캠페인을 벌여 이주민을 농촌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간헐적으로 실행되고 있다.⁹⁵⁾ 중국공산당은 도농관계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 입각해서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 즉 농민공(农民工)의 농촌송환을 주기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록 후코우 체계가 농촌송환 캠페인의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주었지만, 농촌을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으로 이상화함으로써 농민공의 대규모 송환을 이념적으로도 정당화해야만 했다. 하지만 화이트가 지적하듯이, 농촌의 지속적인 정치적 이상화에도 불구하고, 도시민과 농민 모두 농촌으로의 송환을 일종의 형벌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농촌의 정치적 이상화가 오히려 농촌과 농민의 문화적 오명화에 더더욱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 시절 도농관계의 양가적 구성은 문화대혁명 당시 정점에 이른 도시 지식청년층의 농촌하방과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번스타인(Thomas Bernstein)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식청년층의 농촌하방 캠페인은 원래 사회주의 정부의 도시성장 제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캠페인을 통해 농촌이나 산촌으로 하방된 도시 청년들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달했다.⁹⁶⁾ 마오쩌둥이 농민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마을로 내려갔던 것처럼, 일부 도시 청년들은 혁명적 열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방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제도적 도농불평등 구조 하에서 추진된 농촌이주는

94) Potter and Potter 앞의 책, p.296.

95) Guang 앞의 글.

96) Bernstein, Thomas P.,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 The Transfer of Youth from Urban to Rural Chin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하방된 대부분의 도시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심각한 하락과 불명예를 의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방이 수반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뒤섞임은 도농 간 교류와 이해의 증진보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적 생활양식의 오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내면화된 농촌과 농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5.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궤적을 근대전환기, 중화민국시대, 마오쩌둥 치하 사회주의시대로 구분해서 추적해보았다. 서구 모더니티와의 트로마적 조우로 시작된 근대전환기는 전근대 중국의 도농관계를 특징지었던 사회문화적 연속체가 해체되고 근대적 도농이 분별과 도농불평등의 정치경제적·문화적 단초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신해혁명과 함께 문을 연 중화민국시대에는 중국 경제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중국 내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농촌부문에서 도시/산업부문으로의 급속한 가치이전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경제와 농촌사회는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서구에서 도입된 사회진화론의 개념적 프레임을 통해 도농관계가 문화적으로 재구성되면서 도시는 진보의 상징이자 모더니티의 소재지로, 농촌은 봉건적 낙후성과 무지몽매의 장으로 정의되고 재현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사회주의시대에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도시/산업부문에 편향된 경제개발정책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제도화한 후코우로 인해 도농이원구조와 도농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이전 시기에 이미 농촌과 농민에게 찍힌 봉건적 낙후성과 무지몽매의 상징이라는 문화적 낙인이 더욱 선명해지게 된다. 하지만 농민의 정치적 동원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에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농촌과 농민을 혁명의 선봉이자 사회주의적 도덕성의 수호자로 이상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시대 중국의 도농관계는 표면적으로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이념적 양가성을 통해 구성되었고, 이는 문화혁명기에 절정에 이른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궤적을 밟아온 중국의 도농관계는 1978년 덩소핑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경제적·문화적 지형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사회 곳곳에 시장경제원리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회주의시대를 특징지었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경제적·문화적 단층이 급속하게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를 넘기며 도시/산업부문의 성장이 농촌부문의 성장을 압도하게 되면서 이전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도농이원구조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농촌과 농민에게 씌워진 사회문화적 오명은 역사적으로 유래 없이 현저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시절 하방되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 도시로 돌아온 이른바 ‘지청세대’(知青世代, 지식청년세대의 준말)가 개혁개방과 함께 도시중산층으로 부상하면서 그들 사이에 농촌과 농촌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가시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농관계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적·이념적 양가성을 통해 상상되고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7)

개혁개방 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 대한 입체적 이해는 2018년 1호문건을 통해 시진핑 정부가 공표한 도농일체화 정책의 중층적 함의를 포착하고, 오늘날 중국사회의 권력관계와 정치경제적·문화적 지형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는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변화궤적을 추적함으로써 오늘날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적 심층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오늘날 중국사회의 권력관계와 문화적 지형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국 도농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그 정치경제적·문화적 함의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적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조영남,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
- 廢 名, 『竹林的故事』. 北京: 華夏出版社, 2009(1925).
- 費孝通, 『鄉土中國』. 上海: 世紀出版集團, 2007.
- , 『中国绅士』.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6. (Fei, Xiaotong, *China's Gentry: Essays in Rural-Urban Re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馮友蘭, 『新事論』. 上海: 遠東書局, 1972(1939).
- 秦 暉·蘇 文, 『田園詩與狂想曲—關中模式與前近代社會的再認識』,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1996.
- 毛澤東,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1927.
- 中共中央, 「中共中央, 國務院關於實施鄉村振興戰略的意見」, 新華網, 2018.02.04.
(http://www.xinhuanet.com/2018-02/04/c_1122366449.htm)
- Bernstein, Thomas P.,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 The Transfer of Youth from Urban to Rural Chin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Chen, Weixing,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Development in China 1978-1999*, Connecticut and London: Praeger, 1999.
- Cohen, Myron L.,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s'",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Davis, Deborah, "Introduction: urban China," Deborah Davis, S., Richard Kraus, Barry Naughton, and Elizabeth J. Perry (eds.), *Urban Spaces in Contemporary China: the Potential for Autonomy and Community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Dean, Kenneth, "Despotic empire/nation-state: local responses to Chinese nationalism in an age of global capitalism," Kuan-Hsing Chen (ed.), *Trajectories: Inter-Asia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 De Bary, Theodore and Richard Lufrano, *Sources of Chinese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97) 이에 대해서는 개혁개방 후 중국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ity Press, 1999.
- Dong, Yue Madeleine, *Republican Beijing: The City and Its History*,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Eberly, Patricia B. and James L. Watson (eds.),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 Elvin, Mark,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Esherick, Joseph W., "Modernity and nation in the Chinese city,"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 Faure, David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Publishers, 2002.
- Faure, David, "What made Foshan a town? The evolution of rural-urban identities in Ming-Qing China," *Late Imperial China* 11(2): 1-31, 1990.
- _____, *The Rural Economy of Pre-Liberation China: Trade Expansion and Peasant Livelihood in Jiangsu and Guangdong, 1870-1937*, Hong Kong, London,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Ferguson, James, "The country and the city on the Copperbelt."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Culture, Power, Place: Explorations in Critical Anthropolog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 Feuchtwang, Stephan, "School temple and city god."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Popular Religion in China: The Imperial Metaphor*, Richmond: Curzon Press, 2001.
- _____, "Theorizing place." S. Feuchtwang (ed.), *Making Place: State Projects, Globalization and Local Response*, UCL Press, 2004.
- Freedman, Maurice, *Lineage Organization in Southeast China*. London: Athlone, 1958.
- _____, "O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nese religion," Arthur Wolf (ed.), *Religion and Ritual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 Gernet, Jacques,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Daily Life in China on the Eve of the Mongol Invas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 Guang, Lei, "Creating rural-urban boundaries: rural workers in cities and regimes of re-rustication in China,"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2003.
- Harrison, Henreitta, "Village identity in rural north China: a sense of place in the diary of Liu Daping,"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Oxford: Palgrave, 2002.
- Johnson, David, "The city-god cults of Tang and Sung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5(2): 413-17, 1985.
- Kelliher, Daniel, "Chinese Commu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rediscovery of the peasantry," *Modern China* 20(4): 387-415, 1994.
- Kipnis, Andrew, "Within and against peasantness: backwardness and filiality in rural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 (1): 110-135, 1995.

- Kirkby, R. J. R., *Urbanization in China: Town and Country in a Developing Economy, 1949-2000 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Köll, Elisabeth, "Factories in the countryside: the industrial workforce and social division in Nantong county, 1895-1937,"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 Lenin, V. I., *Imperialism: the Highest State of Capitalism*, International Publisher, 1969.
- _____, *Alliance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ry*,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4.
- Lin, Tongqi, "A search for China's soul."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Liu, Tao Tao and David Faure, "Introduction: what does the Chinese person identify with?" Tao Tao Liu and David Faure (eds.), *Unity and Diversity: Local Cultures and Identities in China*,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6.
- Liu, Tao Tao, "Local identity in modern Chinese fiction and fiction of the native soil (xiangtu wenxue)," Tao Tao Liu and David Faure (eds.), *Unity and Diversity: Local Cultures and Identities in China*,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6.
- Lu, Hanchao, "Urban Superiority, Modernity, and Local Identity: a Thank Piece in the Case of Shanghai," in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 Marx, Karl,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R. C.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W. W. Norton & Co., 1978.
- Mote, Frederick, "The Transformation of Nanking, 1350-1400," in G.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A millennium of Chinese urban history: form, time and space concepts in Soochow," *Rice University Studies* 59: 35-65, 1973.
- Musgrove, Charles D., "Building a dream: constructing a national capital in Nanjing, 1927-1937,"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 Ong, Aiwa, "Anthropology, China and modernities: the geopolitics of cultural knowledge," Henrietta L. Moore (ed.), *The Future of Anthropological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Potter, S. H and Potter, J. M., *China's Peasants: the Anthropology of a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awski, Evelyn S., "Problems and prospects," David Johnson, Andrew J. Nathan, and Evelyn S. Rawski, (eds.),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Rowe, William T., *Hankow: Conflict and Community in a Chinese City, 1796-189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A Millennium of Chinese Urban History: Form, Time and Space Concepts in Soochow," *Rice University Studies* 59: 35-65, 1973.
- Schein, Louisa, "Gender and internal Orientalism in China," *Modern China* 23 (1): 69-98, 1997.
- Scott, James, *Seeing Like a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 Sit, Tsui and Tak Hing Wong, "Rural China: From Modernization to Reconstruction," *Asian Studies*

- 49(1): 43-68, 2013.
- Skinner, G. William,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Smith, Thomas C., "Peasant time and factory time in Japan," *Past and Present* 111: 164-197, 1986.
- Tang, Xiaobing, *Global Space and the Nationalist Discourse of Modernity: the Historical Thinking of Liang Qicha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Wang, Liping, "Tourism and spatial change in Hangzhou, 1911-1927,"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 Watson, Rubie Sharon, *Inequality among Brothers: Class and Kinship in South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Whyte, Martin King, "Town and country in contemporary China," *Comparative Urban Research* 10 (1): 9-20, 1983.
- _____, "City versus countryside in China's development," *Problems of Post-Communism*, M. E. Sharpe, Inc., 1996.
-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The Hogarth Press, 1973.
- Yang, Mayfair, "Tradition, traveling anthropolog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in China," Henrietta L. Moore (ed.), *The Future of Anthropological Know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 _____, "From gender erasure to gender difference: state feminism, consumer sexuality, and women's public sphere in China," Mayfair Yang (ed.), *Spaces of Their Own: Women's Public Sphere in Transnational China*,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Yu, Ying-shih, "The radicalization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Wei-Ming Tu (ed.), *China in Transformation*, Cambridge and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Zhao, Shiyu, "Town and Country Representation as Seen in Temple Fairs," in David Faure and Tao Tao Liu (eds.), *Town and Country in China: Identity and Perception*, Palgrave Publishers, 200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도농관계, 도농연속체, 진보적 도시, 봉건적 농촌, 정치적 이상화, 도시편향		
	영문	Rural-Urban Relations, Rural-Urban Continuum, Progressive City, Feudal Country, Political Idealization, Urban Bias		
<div><div>The Historical Trajectory of China's Rural-Urban Relations : From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to the Socialist China</div><div>Park, Choong-Hwan</div><div><p>This article aims at illuminating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China's rural-urban relations in terms of three historical periods,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the Republican China, and the Socialist China under the Maoist regime.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was the time when the traditional form of sociocultural continuum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was gradually dismantled and the modern form of rural-urban distinction and inequality was formulated. The Republican China witnes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rural-urban relations as a result of the cultural reconfiguration of the city and the country in terms of social evolutionist conceptual framework adopted from the West. Accordingly, China's countryside began to be represented as the locus of feudal backwardness and ignorance and the city as the symbol of progress and the site of modernity. In the Socialist China, the rural-urban relation was constructed upon a seemingly incompatible ideological and cultural ambivalence, and it registered its dramatic form in the so-called 'up-to-the mountain, down-to-the village' campaign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China's rural-urban relations traced by this research is to be a critical intellectual jumping board for understanding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rurality and urbanity and its multiple implications in the political-economic and cultural landscape of Chinese society today.</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박충환 / 朴忠煥 / Park, Choong-Hwan		
	소 속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Em@il	parkhanam@k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4월 23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